

제356회 국회 (임시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18년2월12일(월)

장 소 제5회의장(220호)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청년미래특위 자문위원단 구성의 건
- 3. 업무현황보고(계속)
 - 가. 외교부
 - 나. 국방부
 - 다. 국가보훈처
 - 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정된 안건

3. 업무현황보고(계속)	2
가. 외교부	
나. 국방부	
다. 국가보훈처	
라. 한국산업인력공단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4
2. 청년미래특위 자문위원단 구성의 건	5
3. 업무현황보고(계속)	5
가. 외교부	
나. 국방부	
다. 국가보훈처	
라. 한국산업인력공단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 여야 위원님들 또 정부기관 부처 관계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4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하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에 따라서 청년특위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홍성현 전문위원이십니다.

또 행정실장을 맡게 된 양혜자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한 가지 더 참고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전 참관 요청으로 청년유권자연맹에서 두 분이 와서 여기 참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우선 각 기관으로부터 업무

현황보고를 받은 다음에 의결할 안건은 추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외교부

나. 국방부

다. 국가보훈처

라. 한국산업인력공단

(10시13분)

○**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께서 배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청년층의 여러 가지 문제, 정말 빠른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존망과 연계되는 중요한 문제라서 우리 모두가 나서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해외취업 및 국외파견 사업 이것 또한 우리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고 또 군 장병의 50% 이상이 전역 후 진로 문제를 가장 큰 고민으로 응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므로 군 장병의 진로와 취업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 청년 보훈 대상자의 취업지원 제도도 청년층의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인력공단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정말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현 외교부 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서 현재 우리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고민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부의 해외 일자리 창출 지원업무 주요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금번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향후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외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소중한 지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성덕 양자경제외교국장입니다.

정진규 개발협력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여타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외교부의 해외 일자리 창출 지원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해외 일자리 업무 추진 개요입니다.

외교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국제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이를 취업으로 연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 본부에서는 해외 일자리 창출 TF를 구성하여 부내 및 재외공관의 일자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왔으며 재외공관에서는 2015년부터 공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외취업지원협의체를 설치하여 현지 공공기관과 협조하에 해외취업 업무를 전체적으로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관련 업무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 진출 지원, ODA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해외취업 지원업무 분야와 국제기구 전문가, 봉사단, 인턴 등 국외파견사업 등입니다.

또한 외교부는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이나 청년일자리 대책 등 범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 분야에서는 2017년 11월 현재 183개 재외공관에 3000여 명의 행정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서 이들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외직명표준안 마련, 관련 지침 개정 등 행정직원 처우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우리 국민 비율은 여전히 1% 정도인 상황을 감안해서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를 통해 상담 제공, 간담회·설명회 개최, 가이드북 발간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 분야 해외취업 지원 노력입니다.

외교부는 고용 여건이 좋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외교적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용 여건이 양호한 일본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추진 중이며 우리 대학에서 3년 정도 공부하고 취업 시기에 맞춰서 일본 자매대학에서 나머지 1년을 보낸 후에 졸업함으로써 일본 현지에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3+1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월 12일에는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일본 지역 공관에서 일본 내 대학을 직접 개별 접촉하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3월 중에는 양국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상반기에는 일본에서 대학 간 매칭 행사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는 해외취업지원협의체가 설치된 17개 지역을 중심으로 채용 박람회, 인재 설명회, 기업 방문 등 구인·구직 정보 발굴과 매칭, 체류 여건 개선을 위한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외취업지원협의체 확대, 역할 내실화 등을 통해 재외공관의 해외 일자리 창출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인프라사업 수주도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민간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및 ODA 분야 직접 고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년·벤처기업이 참여하는 CTS(혁신적 비즈니스 지원 제도), IBS(혁신적 기술 지원 제도) 규

모를 각각 전년 대비 230%, 35% 확대하였고 대학과 NGO, 시민사회와 함께 시행하는 민·관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해외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규 협정을 체결하고 참가자의 쿼터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페인, 폴란드와 협정을 체결하였고 아일랜드, 대만에 대해서는 쿼터 확대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르헨티나, 스위스, 노르웨이 등 워킹홀리데이 참가 국가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하나, 외교부가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야가 비자나 해외 체류 자격 완화 문제입니다. 중국, 미국 등 우리 유학생이 다수 진출해 있거나 취업 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각종 계기에 관련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국외파견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국제기구, 정책연구소, 박물관, 대학 등의 우수한 해외기관, 재외공관, 재외동포기업 등 다양한 기관을 중심으로 우리 청년들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국제기구로는 유엔자원봉사단,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 다자협력 전문가, 중남미지역기구 인턴십, 에너지기구 인턴십을 파견하고 있으며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작년 한 해에 봉사단, ODA 인턴 등 총 5000여 명을 파견하였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이러한 국외파견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기구나 NGO, KOICA 등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연계 및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해 경력 사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코리아 파운데이션 글로벌 챌린저나 공공 외교 현장실습원 제도를 통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해외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재외동포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상 청년인턴십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진출이나 다양한 국외파견 기회에 대해 청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지구청년’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통합적인 정보

를 제공 중이며 각 분야별로 국제기구·기업의 인사담당자나 진출 경험자를 초청하는 간담회 및 설명회 등도 연중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전문성 제고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국회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우리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재외공관에서 개별 구직자나 구인기업의 수요에 하나하나 대응하기에는 현재 재정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재외공관 일자리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취업애로 해소를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공관의 일자리사업 예산 신설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확충 필요성도 있습니다. 외교부 내에 비직제로 설치되어 1명의 계약직 컨설턴트로 운영 중인 국제기구 인사센터의 직제화를 통해서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국제기구 정규직 진출에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제도인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파견 인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그 외에도 한상 인턴십이나 코리아 파운데이션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 등 예산 부족으로 인해 참가 및 파견 희망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 증액도 아울러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별지로 배포된 추가 자료는 ODA를 통해 청년일 자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봉사단 파견 확대, KOICA 인력 확충 및 개발협력 커리어센터 확대, 민·관 협력사업 예산 확대, 재외공관에서 ODA 사업을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ODA 전문관 채용 등을 함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외교부의 해외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조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듣기에는 이게 기왕에 하던 시책을 죽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기왕에 하던 시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특히 새 정부 들어서 대통령께서도 강조하고 국민들도 요구하고 청년들이 요구하는 이런 새로운 청년정책에 대한 수요와 관련해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훨씬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업무보고 중입니다만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상임위 일정과 중복이 되어서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 먼저 의결 사항을 처리를 하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7분)

○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당초 예정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는 청년관련법안검토소위원회와 청년정책소위원회 이렇게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은 청년관련법안검토소위원회는 일곱 분 또 청년정책소위원회는 여덟 분으로 구성을 하고요. 청년관련법안검토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세 분, 자유한국당에서 세 분, 국민의당 한 분으로, 청년정책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세 분, 자유한국당 세 분, 민주평화당 한 분, 민중당 한 분으로 이렇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은 청년관련법안검토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위원님께서 또 청년정책소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께서 각각 맡아 주기로 하셨습니다.

위원은 이미 그 내용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를 교섭단체 간사가 이미 합의한 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이미 간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 간략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김병관 위원님, 특별히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김병관 위원** 이번에 청년관련법안검토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은 김병관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청년기본법이 6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가위와 기재위에서 각각 3건씩 나눠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입법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저희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청년기본법과 관련된 단일안을 만들어서 향후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단일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우리 청년단체들 그리고 정부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단일화된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수** 다음은 청년정책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보라 위원님 간략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청년정책소위원장을 맡게 된 자유한국당 신보라 위원입니다.

청년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주제가 광범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청년들이 놓여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는 소위를 구성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많은 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업무 보고를 받은 모든 부처를 상대로 관련한 예산을 구체화해서 또 보고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주거·부채 전반에 걸쳐서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그것들에 대한 정책 개선 과제들을 검토해서 위원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소위원회 위원장님 두 분께서 여러 가지 필요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청년미래특위 자문위원단 구성의 건

(10시31분)

○**위원장 이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이미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총 13명으로 하고 위원장이 2인, 더불어민주당에서 4인, 자유한국당이 4인, 국민의당이 2인, 민중당에서 1인을 각각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이 특정한 정당 소속이기는 합니

다만 중립적인 인사로 제안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처럼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문위원단 명단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협의해서 확정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외교부

나. 국방부

다. 국가보훈처

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쁘신데 나오셨는데, 중요한 시기인데요, 서주석 국방부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존경하는 이명수 청년미래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청년일자리 정책 관련 국방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는 군무원 및 간부 증원, 청년 장병에 대한 진로도움사업 등 청년 장병들의 일자리를 위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관 윤영모입니다.

인사기획관 이황규입니다.

보건복지관 권영철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저희는 청년일자리 지원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국회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니다.

일자리 지원 정책은 최근 정부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서 중장기 복무 간부 위주에서 단기 복무자 및 의무복무 현역병까지 정책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전역 간부와 현역병 등 신분별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전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저희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 정책의 대상은 정부의 사업 대상 연령층(15세~34세)에 해당되는 현역병 및 단기 복무 장교·부사관 중 전역하는 인원입니다. 현재 연간 약 27만 1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학 복학자 등 19만 2000명을 제외한 7만 9000여 명이 전역 직후 취업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국방부는 국방 분야 청년일자리 창출·확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군 간부와 군무원 등 1만 8000명의 군 일자리가 마련되고 있고 주로 부사관인 중·하사 및 7~9급의 군무원 등 하위직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8년에는 예산에 따라서 여기 나온 대로 3500명 정도 증원이 되고 있고요, 19년 이후의 연도별 증원계획은 현재 저희가 마련 중인 국방개혁2.0 계획에 따라서 18년 3월 말씀 확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군복무 중 자기개발 및 학력신장 지원과 관련되어서 저희는 군복무 중 국가기술자격 검정 지원 또 학점 지원 또 군복무 경험의 대학 학점 인정 추진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복무 경험의 대학 학점 인정 추진은 작년 11월 달에 고등교육법의 관련 내용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올해부터 참여 대학에 대한 정책 설명과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장병들에게 온라인 직업적성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부대로 찾아가는 진로교육, 멘토링 시범 운영 등 진로설계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전역 예정 장병들에 대한 취업박람회를 매년 3월에 개최하고 있는데 이것에 더해서 구인·구직 만남 행사, 취·창업 설명회 등 다양한 현장채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

장병들의 최대 고민은 전역 후 진로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병사, 부사관, 장교 모두 50% 이상이 진로문제를 가장 큰 고민으로 응답한 바 있습니다. 병사의 58.5%, 장교의 54.8%, 부사관의 50.2%가 가장 큰 고민거리로 진로를 선택했습니다.

청년 장병에 대한 체계적 진로와 취업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전히 군 내부에 장병들을 위한 진로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예산 제약으로 대부분 시범사업 형태로 극히 일부 부대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연간 전역 장병 27만 1000명의 약 5%인 1만 4000명 정도에 대한 지원 예산만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도 전투·훈련 위주의 근무로 출타가 불가능하고 사이버지식정보방을 활용한 온라인 프로그램 참여도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2017년 기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장병당 일일 평균 이용시간은 약 2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 및 입법 등 일자리 지원 인프라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된 법제도와 사업이 그동안 중장기 전역 간부 위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또 군인복지기금으로 그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증대되는 진로수요에 적극 대응하기가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청년장병 취업현황 조사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4쪽입니다.

그에 대한 개선 방향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방 분야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방개혁2.0과 연계해서 비전투 분야 현역 장병을 전투부대로 전환하고 해당 직위를 군무원 및 민간 근무원으로 충원하는 계획을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또 전환복무가 그동안 전의경·해경·소방원 등 약 1만 7000명 정도 있는데, 저희가 국방 개혁에 따라서 전환복무 인원의 대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청년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을 위한 진로 및 취업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도 저희의 주요한 개선 방향입니다. 현재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진로교육을 연대급 전 부대로 이번 2월부터 확산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배 확대해서 올해에는 350회, 총 3만 5000명 정도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 전문가를 군 부대에 파견해서 1 대 1 취업상담하는 프로그램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처 협업을 통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다각화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취·창업 및 현장연수 프로그램 지원에 관해서 현재 협의하고 있고요. 또 분야별 부처·지자체 취업박람회 등을 공동 개최하고 장병의 참여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알선을 강화하고 잡(job) 매칭을 체계화함으로써 취업성공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취업희망 장병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과 중소기업 채용알선을 이미 작년 12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협회 및 단체와 연계해서 장병이 선호하는 기업의 풀(pool)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알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청년 장병의 진로 및 취업 지원 인프라와 관련해서 법적 지원 근거를 확충하고 장병의 진로준비 실태 및 전역 후 취업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5쪽, 국회에 대한 정책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안이 발의 중인 상태입니다. 군 간부 중에 19년 6개월 이하 군복무자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인데 그 방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을 확대 중인 그러한 진로도움사업의 예산을 확충하는 것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찾아가는 진로교육을 현재 연대급까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대급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지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1 대 1 취업상담도 올해 5000명 정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대폭 확충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기 복무 간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문교육훈련 확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인복지기금에서 현재 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통상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방부는 이것을 군인복지기금으로 편성해서 산하기관인 국방전직교육원의 사업 및 운영비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후 전역하는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과 책임 강화 차원에서 일자리 및 취업 지원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서주석 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 양해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요, 심덕섭 보훈처 차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보고까지만 하고 다른 일정 참석을 위해 이석하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대한 사항은 이병구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께서 하도록 하려는데 이 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저희 국가보훈처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2세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저희 보훈정책은 고령자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대상자 중에는 17만 명의 청년들도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가적으로도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년 보훈대상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청년 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리고 하유성 보상정책국장입니다.

그리고 김광우 제대군인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는 준비된 보고자료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청년 보훈대상자 지원 정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 실태와 주요 추진과제 순

입니다.

1쪽입니다.

청년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실태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제대군인 243만 명 중 청년은 17만 명으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대학까지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졸업 이후에는 보훈특별고용과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가점부여 등을 통해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전국 7개소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전직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성격의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추진과제로서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과 취업 지원입니다.

먼저 기업체가 원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직업교육을 강화합니다. 본인 부담 취업 수강료의 70%를 지원하고, 공공직업훈련 입소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장려금도 지원합니다. 이 밖에 대학생과 기업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 있는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직업상담사 제도의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일자리 실태조사를 6월까지 실시하여 적합 일자리를 발굴하고 기업체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입니다. 공공기관 평가에 국가유공자 채용률을 반영하여 공공일자리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외에 소재한 교육기관 재학자에 대해서도 국내 재학자와 같은 수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쪽입니다.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먼저 취업과 연계한 교육지원으로 제대군인의 취업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전문 위탁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사이버교육 지원 등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일자리 지원입니다. 양질의 민간일자리 확대를 위해 1사 1제대군인 채용을 추진하고 희망자에

대해서는 해외취업시장 진출과 창업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입니다.

여성 제대군인, 고졸 이하의 의무복무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겠습니다. 여성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군 경력이라든가 자녀양육 등 취업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업맞춤특기병에 대해서는 전역한 후 전담 상담사를 1 대 1로 배정하는 등 올해부터 취업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 고용부 등 10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활성화하고, 10월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제대군인 주간’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 지역에 대한 취업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강원권 제대군인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심덕섭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가지고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관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각해진 사회문제로 대두한 청년실업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공단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국민과 정부 역시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우리 공단은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청년층 취업역량 제고와 글로벌 경력개발 및 공정한 채용환경 조성 등 청년일자리사업에 전사적인 역량을 더욱 결집하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주신 고견과 제안은 향후 우리 공단이 사업을 추

진해 나가면서 적극 반영하는 한편 따가운 질책도 크게 듣고 겸허하게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우리 공단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곤 능력개발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지금부터 준비된 보고자료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청년일자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한 공단 사업의 추진배경을 보고드리고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최근 저성장 기조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 3~5년간은 청년인구의 일시적 증가로 청년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년 입직 평균연령은 25세로서 구직자 재교육·훈련 등의 요인으로 OECD 국가 입직 평균연령 22.9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단에서 추진 중인 청년일자리 정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청년일자리 주요 사업으로 크게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의 체계적 운영, 청년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경력개발 지원, 블라인드 채용 확산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과 훈련을 연계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서 청년의 경쟁력과 기업의 생산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학습병행제도는 제도 도입 후에 1만 1655개 기업, 5만 7386명의 학습근로자 참여로 체계적 훈련에 기반한 일자리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학습근로자 중 청년층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등 청년에 대한 취업역량 강화와 이공계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의 문이 좁은 인문계 대학생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기회 제공을 위해서 청년의 취업역량 배양 및 융·복합 인재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연수과정을 인문특화 과정으로 전면 개편해서 인문계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관련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일학습병행제는 좋은 일자리 발굴, 재학생 단계 확대, 관련법 입법 추진 등을 통해서 질적 확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창직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로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경력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교환학생, 봉사 등 글로벌 경험을 갖춘 요즘 청년들은 해외취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부족 등으로 개인이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그동안 해외취업 인원 확대, 일자리의 질 향상을 통해서 더 많은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일자리 기준에 있어 단순 직무를 배제하고 연봉 기준을 올렸고 국내 해외취업센터 개소 및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서 국내외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구직자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에게 해외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회가 많고 비자 등 취업환경이 양호한 일본, ASEAN 국가에 집중하는 등 국가·직종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상담, 정보제공, 취업성공 역량강화 서비스를 강화하여 취업준비청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취업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대상으로 해외진출학과를 선정, 예비자 육성 등 장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와 민간 포털사이트와의 일자리정보 연계를 통해서 정보의 통합 제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구직 단계에서 해외진출 후 경력 경로까지 지속적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서

해외진출 청년의 애로사항 청취 등 현지 상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라인드 채용 확산 관련 보고입니다.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은 채용에서 불공정한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여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부여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추진해 왔습니다. 102개 공공기관에 전문 컨설팅을 통한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지원하였고 고용부와 합동으로 공공기관 및 인사담당자 집중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총 280여 회에 이르는 청년 대상 설명회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100여 개 지방 공기업까지 컨설팅을 확대하여 공공으로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 부문의 성공적 정착을 바탕으로 전문 컨설팅 및 인사담당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에게는 블라인드 채용 방법, 사례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청년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다 나은 일자리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단의 청년일자리사업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동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일을 맡으셨는데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고, 청년정책 특히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오늘 예정된 부처와 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고하신 대로만 제대로 성과를 내도 여러 가지 청년일 자리를 비롯해서 청년정책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 부처의 보고를 들으면서도 내내 같은 판단이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이런 점

이 우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청년정책이나 일자리가 특정한 부처,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고 다른 부처는 이것을 지원하는 거다, 자꾸 이런 개념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어떤 주관부처가 있으면 각각 개별 부처도 각각의 부처별로 특성과 업무 영역에 따라서 청년정책에 우리가 주관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부처의 일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마치 사이트에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의 시책이나 보고가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또 하나는 사실 청년정책을 우리가 그동안 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죽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도 왜 이 시점에서 청년정책이나 청년일자리 문제가 더 크게 부각이 되는가, 이 시대와 또 새 정부 들어서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뭘 강조하고 뭘 중점에 두고 지금의 청년 욕구에 맞는 새로운 노력이 뭐가 필요한가 그게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해 줘야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면 이게 미스매치가 됩니다.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앞으로 잘 보완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제 위원님들 질의 차례입니다.

당초에는 질의 순서에 따라 예정된 대로 한 분 한 분 호명해서 하기로 했는데 앞서 사전 협의에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필요한 위원께서 신청을 해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되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미리 답변하실 분을 지정해서 말씀을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민중당의 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종훈 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청년실업률이 9.2%를 넘어서고 있고 체감은 한 25%에 달한다니까 사실 국가 재난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해외취업과 관련된 문제를 의견을 드리면, 해외취업을 지난 정부에서 추진을 했지만 실효성은 사실상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2017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까지 4년간 해외취업자 중 3년 이상 해외체류 중인 사람은 27.6%, 173명에 불과하다

는 것이지요. 이조차도 응답률이 전체 5907명 중 22%밖에 안 되어서 사실상 고용안정성은 훨씬 더 열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정부기관이 공동 추진한 K-Move사업의 경우도 지난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해외취업자 173명의 행방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일정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봉 수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해외취업을 하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2900만 원 정도이고, 국내 대졸 신입사원들의 3325만 원 정도로 보면 해외취업에서 훨씬 높게 받거나 이러지는 않다는, 평균 수준에도 현실적으로 못 미치고 있다. 그런데 해외취업을 하면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측면도 상대적으로 있어서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거지요.

외교부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해외취업을 한 청년들 취업비자 현황을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전체적으로 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김종훈 위원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김종훈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이 해외에 취업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해외취업과 관련한 여러 현안도 있을 수 있지만 신변에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미 신분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상호관계도 형성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과 관련해서 법제도를 빠르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 신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 조치를 빨리 취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께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취업 인증기준은 최소 조건이겠지요. 그런데 실제 작년 구인공고 인증거부 건수를 보면 전체 8795 공고 중 3.58%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정부가 운영하는 홈

페이지가 구인기업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외취업은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근본해법이 아니기도 하지만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기업회원 가입 신청 시에는 홈페이지 가입 자체를 제한적 방법으로 지금 현재 엄격히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외취업자 조사를 통해서 구인기업 DB를 정비하고 해외 K-Move에 노무 담당 멘토단을 구성해서 해외취업 청년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서 실제로 적시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피해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외취업을 권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잘 취하는 것 또한 국가가 해야 될 기본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님께 하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응하는 최선의 방법을 ‘경력이나 학업의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 방향으로 또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보고자료를 보면 또 국방부가 일자리정책대상을 중장기 간부 위주에서 의무복무 현역병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또 건의사항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한편에서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군복무 중에 국가기술자격과 학점 취득을 지원하고 학습 여건을 보장하며 원격강좌를

위한 참여 대학을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 하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병사들의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군대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군대 병사 문화도 있을 텐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것을 배려해 주지 않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방부 전체의 입장·방향을 부대의 성격에 따라서, 부대장의 방침이나 여건에 따라서 이런 전반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것을 공부를 할 수 있거나 또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해야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일과 이후나 공휴일에 최대한 휴무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하반기 이후에는 병사 생활관을 장병들이 교육훈련이 끝나고 나면 퇴근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방개혁2.0 계획에서 저희가 병영문화 개혁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 내용들을 더 담아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말씀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병사들이 기술을 연마하거나 학습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 보장이나 제도적인 방침들을 마련해서 가지고 의견을 구체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서주석 국방부차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당에서 청년위원장도 했었고, 지금 경기 광주을의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장병들의 최대 고민은 전역 후 진로 문제라고 생

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하는 장병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적이 상당히 미미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정책 대상인 전역 인원이 연간 약 27만 명 정도 되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임종성 위원 이 중 대학 복학자 등 19만 2000명을 제외하면 한 8만 명이 전역 직후 취업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지금?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이 중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통해 매년 취업된 인원은 연간 1300명으로 파악되지만 전체 대상 중 1.64%에 그치고 있고 또 구인·구직 만남이나 취업·창업설명회 등을 통해 취업된 인원은 1.2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존의 법제도 및 전역 지원 프로그램이 중장기 간부 위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역 직후 취업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약 8만 명의 전역 장병에 대해서 국방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취업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장병이 6만 2530명에 달하는데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국방부가 보고한 개선 방향 중에 이런 측면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소극적인 정책으로 보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쥬 보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국방부는 주로 전역 간부들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후에 전역 병사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제도들이 현재까지는 시범적인 사업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업 성공률이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시범적인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취업에 성공하는 것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 간부의 경우에도 현재 사회에서의 취업 성공률이 60%인데 전역 간부는 53% 정도로

낫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장병 일자리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전역 병사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외교부 조현 2차관님하고 서주석 국방부차관님한테 함께 질의드리겠는데, 해외공관에 보면, 대사관이나 공사에 보면 직원 채용이 있어요. 그런데 언어나 이런 게 원활하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해외에서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해외동포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즘 군복무 대체를 사회복지요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복지요원을 대체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봐도 실질적으로 해외동포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군 생활을 굳이 국내까지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민원인들한테는 일단 언어가 통하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짧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현재 병무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제도 개선을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 외교부로서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서 우리 재외국민의 능력을 갖춘 자녀가 재외공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이게 해외동포들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당 부처하고 한번 심도 깊게 의논을 해 주시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 깊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주석 차관님께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외의 경우 청년 전역 장병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외국의 장병취업지원제도 그 자료는 다 있지요? 다른 위원들한테도 같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자료가 준비되면 같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나 몇 개 국가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들었는데 종합적인 외국의 장병취업지원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방부차관 서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다음은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종로 위원님 또 권철승 위원님 그 순서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저는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 위원인데요.

오늘 4개 부처에서 나오셨어요. 혹시 일자리하고 산업인력공단이 좀 직접적일 수가 있어서 제가 여쭙게요.

지금 산업인력공단 말고 다른 부처에서 청년일자리 문제, 청년 문제를 여러 가지 업무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혹시 몇 개 부처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지요? 괜찮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산업인력공단에서 청년의 나이를 몇 살로 봅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청년의 나이를 지금 15세부터 34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렇게 보고 있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예.

○**염동열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업무 부처를 보게 되니까 교육부, 고용노동부, 교통부, 여성가족부, 병무청, 금융위원회 이렇게 6개 부처가 나왔고 오늘 국방부, 외교부 그다음에 국가보훈처,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셨어요. 결국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사실은 10개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각자의 부처가 보는 청년의 나이가 다 달라요. 그 정책이 다릅니다. 물론 내가 하고 있는 부처, 내가 맡고 있는 부처 외에 다른 부처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는 일이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제가 오늘까지 부처 보고를 받고 느낀 것은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청년이 직접적으로 일자리와 취업에 있어서 어떤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1단계로 대한

민국 정부가, 우리가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서 적어도 국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디자인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나에게 대한 인생을 적어도 지원할 수 있는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신감,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각 부처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도했을 때 그 청년들이 기본적인 자신감과 희망을 가진 토대 위에서 국가의 정책과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래서 오늘 국방부, 외교부, 국가보훈처와 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놨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15세에서 39세를 청년 나이로 보는데 각 부처에서 갖고 있는 게 최소 한 5~6개의 정책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일일이 다 뽑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내 부처에서 갖고 있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적어도 15세에서 39세까지 어떠한 국가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사각지대에 어떤 청년들이 놓여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국가보훈처대로 나뉘는데 각기의 정책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퍼즐 맞추듯이 적어도 한 청년이 15세에서 39세까지의 전체적인 자기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디자인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은 뭔가, 지원은 뭔가 하는 것을 보고 듣고 그대로 알고 그 정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지금 외교부나 국방부에 청년일자리 전담하는 팀이나 누가 있습니까, 아주 전담하는?

서주석 차관님, 국방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놓게 되면 이렇게 오늘 회의하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타 부처하고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한 청년의 인생을 설계해 주고 디자인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을 적어도 내 부처에서는 어느 시점에 어떤 파트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의 스탠스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저희가 보건복지관실

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입장이 짜여 있고요. 거기다가 다른 인사나 기획관리 이런 쪽이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업무 외에 이것을 같이 겸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적어도 누구 한 명은 전담해서 계속해서 보고 모니터링하고 정책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속해서 진행사항을 추진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국방부에 전직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전직교육원이라는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업무들을 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외교부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는 다른 나라와 경제협력 차원에서 경제협력국이 있고요. 그 외에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진출하기 위해서 유엔국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취합해서 정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리더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지금 현재 여기만 봐도 국방부하고 외교부하고 국가보훈처하고도 굉장히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산업인력공단도 해외 인력 같이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달라고 지난번 보고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대통령도 사실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정부 각 부처에서도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의 역량을 청년일자리에 모으고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타 부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15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의 정부 지원은 어떤 것인지 각 부처가 서로 공유하고 지원·협조 체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내 부처에 있어서의 그 부처에 해당하는 타깃 대상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염려하고 지원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해외에 나가는 인원만 합니까, 들어오는 인원도 하게 됩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나가는 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들어오는 인원은 안 하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들어오는 인원도 저희들이 체크해서 얼마나 수입을……

○**염동열 위원** 같이 하고 있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잘 협조를 하셔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5세에서 39세 한국 청년들이 적어도 국가의 정책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지원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각 부처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수** 염동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 국민의당으로는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내일부터는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나옵니다.

국방차관님, 요즘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 답변이 제대로 되실지 모르겠네요.

병 봉급 있지요,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봉급을 받는데 이게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대로 지키겠다고 그래서 올해부터 많아지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88% 인상됐습니다.

○**김중로 위원** 차관님 입장에서 봉급에 대해서,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간사님이 올해로 해서 격년제로 올려 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셔서 정부가 그러면 올해는 같이 승인을 하자, 첫해니까.

그런데 이번에 병 봉급 올리면서 예산이 얼마가 늘어나요? 알고 계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산이 7600억 정도 늘어 납니다.

○**김중로 위원** 6800억, 7000억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지요? 병 봉급 올려서 역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기능은 돈 많이 줘서 싫어할 사람 없고 병사들도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국방부 입장에서 대승적으로 보면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병사들이 월급이 인상되게 되면 아무래도 씹씹이가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혹시 헤프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현재 경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경제교육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저는 이 7000억이라는 돈을 정말 병 봉급을 올려 인건비로 써야 되는가도 의문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성향도 많아질 거고 그렇게 해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정말 전력 증강에 써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했다고 그래서, 대통령 되기 전에 했다고 그것을 된 후에, 그 정책이 정말 분명하게 국민과 국가에 리스크를 가져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은 저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대통령 되고 나서 여건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서 이것은 국민과 국가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도 그것을 밀고 나가야 됩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군복무 기간 동안에 병사들이 워낙에 많은 것을 희생한다는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저희가 병 봉급 인상을 통해서 최소한도의 보상을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김중로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직장을 자리를 만든다고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그냥 각 부처별로 할당을 해 주는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의 직위를 만든다면 그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저희는 지금 국방개혁 2.0에 따라 가지고 군 전투력 향상에 맞춘 그런 인력구조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일자리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국방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와서 하는 것도 형평성·공평성 이게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군이야말로…… 먹고 자고 입고 씻고 배설하는 문제 전부 다 군대처럼 공평한 데가 없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김중로 위원** 그런데 지금 입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특히 부유층들. 제가 작년도 국감에서도 얘기했지만 5000여 명씩 원정출산하고 국적을 바꾸면서 병역을 이탈하고 자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지금 묻고 싶은 말씀은, 빅뱅의 지드래곤이라고 아시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김중로 위원 그 사람 지금 29세일 것입니다. 국방의무를 계속 연기해요. 이것은 병무청 소관 일지는 모르겠는데, 차관님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대학원 다니면 연기해 주고 박사과정 다니면 연기해 주고 해외에 뭐 하면…… 이 사람 지금 박사학위를 등록해 났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원 거의 안 다닐 것입니다, 해외에 지금 나가는 것으로 봐서는. 이래 가지고 자꾸 범법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보면 뭘 느끼겠어요?

또 심지어는 우스운 얘기로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을 바꿔서 지금 징집 거부 이런 것으로 바뀌지만 도대체 무슨 병역의무를 하고 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인지, 정말 이것 왜 검토 안 하다가 지금 국방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또 병역특례 같으면 2023년도에 없앤다고 그러는데, 2023년 되면 본래 인구절벽 안 와요? 오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때 되면 2만 3000~2만 5000이 부족하고 좀 더 가면 5만 썩 이렇게……

지금 병역을 18개월로 줄이는 것 맞아요? 국방부에서 하신다고 그러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군 정예화가 정말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18개월로 줄이면 1년에 5만 썩 필요합니다, 제 계산으로는. 제가 계산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군 출신으로서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왜 그런 것을 검토 안 하다가 정권 바뀌니까 검토를 하냐고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병력 구조를 그동안 병사들 위주에서 이제는 간부 위주로 가고 현대화에 맞춰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역대 정권들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가 국방부가 반대해서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리도 없이 줄이겠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나중에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안보는 생존의 문제예요, 경제는 생활이지만, 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런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 번이면 끝납니다.

지금 펜스 부통령도 와서 하시고 다니는 것 봐요. 리셉션, 5분 만에 나가버리고 또 남북이 같이 들어오니까 일어나지도 않아요, 일어나라고 권유를 해도. 지금 그 정도로 굉장히 북한을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정부는 미·북 관계가 좋다고 그래요. 저는 3개월이 계속 길었으면 좋겠어요. 3개월 끝나면 안보가 어떻게 될지 저는 걱정스러워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중로 위원 전반적으로 차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나 이런 것을 정부에서 요구하고, 공약을 했더라도 정말 이게 안보에 필요한지……

국가와 국민의 안위입니다, 다른 사업이 아니라고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면 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한 말씀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그러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안보환경 변화와 국방소요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화된 정예군 육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개념과 관련해서 병력 구조 전환을 현재 설계 중인데 좀 더 만들어지면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권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권철승 위원입니다.

김동만 이사장님께 일학습병행제도 관련해서 확인 겸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학습병행제도가 자격 연계가 있고 학위 연계가 있고 그러네요. 그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어느 쪽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어떤 부분에서요?

○**권철승 위원** 일학습병행제요. 일학습병행제가 자격 연계 방식이 있고 학위 연계 방식이 있거든요. 실제로 재학생들이 일종의 학습근로자들이잖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학습근로자들이 어떤 연계형을 더 선호하는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자격 연계형을 더 선호하는 거지요.

○**권철승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습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게 아무래도 취업에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예.

○**권철승 위원** 그런데 2016년에 국회예정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중도탈락률이 높고 1인당 훈련비 예산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인당 평균 181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현재는 1인당 예산 추이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지금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큰 차이가 없다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예.

○**권철승 위원** 큰 차이가 없다는 게 평균이 차이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총예산이 차이가 없다는 건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총예산이 비슷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아닙니다. 총예산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6년에 총예산은 1088억 9700만 원이었고 2018년에 예산이 1295억 3100만 원, 그래서 한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가 한 이삼십% 늘었다면 전체 1인당 예산은 비슷하겠지요.

이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제가 작년 12월 18일 날 취임했습니다.

○**권철승 위원** 뒤에서 좀 가르쳐 주시지요.

잘 모르시나요, 뒤에 계신 분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올해 한 3000개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1인당 평균 훈련비용이 높다라는 지적이 있었으면 이것은 관리지표로 삼고 개선을 해 보셨어야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한 2개월 되어 가지고……

그 내용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 질의 내용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이것은 중요한 관리지표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중도탈락률이라는 게 좀 높다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2016년에 32.9%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 것은 제가 자료를 구했습니다. 거기 보면 30.4%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중도탈락 부분은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문제로 일학습병행 기업의 경우에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일정 부분은 사실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학습병행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훈련으로 총 훈련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마는 기업 선정 강화와 더불어서 기업과 학습근로자를 면밀히 관리해서 점차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리지표들을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2년 고용 유지가 46.1%입니다.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정도로 보실 수가 있고 중도탈락률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 노동계에 오래 계셨고 해서 근로자 입장을 잘 아실 텐데 관리지표들을 명확하게 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제학교 사업을 신청할 때, 작년 9월 달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공업고등학교 교사가 도제업무를 해 줄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업무를 과도하게 하다가, 발표한 것은 그렇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일선 학교의 교사가 이 도제업무를 해 줄 기업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가요?

이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어쨌든 기업 발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교 교사들의 업무로 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현장실습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예, 제주도에서 사고도 있었습니다.

○**권철승 위원** 사고의 문제도 있지만 가서 하는 일들이 노동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졸업 이후에 채용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36.9%입니다. 이게 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있거든요. 이 내용도 알고 계시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학생들을 이 프로그램에 넣으면서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머리와 꼬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사장님 말씀 같으면 지금 진행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그래서 공단은 훈련생 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훈련 실시도 하고 사전교육 가이드북도 만들어서 배포와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 자기가 나중에 직업 채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시피 학위 연계형이 아니고 자격 연계형으로, 자격증 연계형으로 하는 이유가 취업을 염두에 둔 거라는 게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건데 자기가 채용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60%가 넘는다는 것은 실행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그 과정을 제가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 지시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이명수** 조금 더 하십시오.

○**권철승 위원**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서 잡일이나 단순노동, 개인 심부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답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잘못하면 현장실습생하고 비슷한 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습제는 지금 현장실습표준협약서라는 것을 개정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법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예.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노동권을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실제로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표준협약서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열정페이 비슷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지금도 직접 계약을 할 때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철승 위원** 그런데 사례를 보시면 설문조사 답변 사례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들이니까 이사장님이 한번 직접 보시고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적극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오늘 3개 기관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합니다마는 먼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정말 대폭 수정해야 된다, 대통령께서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정부다, 또 청와대 내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겠다, 그야말로 거의 쇼하는 보여 주기식 정책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악의 취업률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최저임금 이 부분을 과감하게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정부의 공약이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서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최저임금을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청년일자리는 더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 명약관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아래 계속 민생 현장을 둘러 봤는데 매우 심각한, 국가의 존망과도 직결될 정도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특히 식당 또 패스트푸드, 마트 이런 데 가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정말 더 일자리가 줄어들고, 5명 쓰다가 2명, 3명으로, 일자리 정부를 내걸고 나왔지만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정부의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최저임금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업종별로 차등 있게 적용하는 부분을 청년미래특위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정부에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속해 있는 중소기업부 또 산업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산업부장관도 상당히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개 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보면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일학습병행제, 청년취업아카데미,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해외취업지원 사업, 블라인드 채용 확산 사업,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저는 이 중에서 해외취업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본회의에서 해외취업 지원기관을 정부 내에 만들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오늘 존경하는 김동만 이사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부족하다, 해외취업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고 구체적이고 또 전담기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지금 글로벌시대에 우리 좁은 국토에서 이렇게 경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해외에서 마음껏 꿈과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지원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제가 한 3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부존자원이 많고 인구도 많고 한테 대한민국의 거의 60년대 말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새롭게 정말 꿈틀거리고, 또 지금 현 조코위도도 대통령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국가의 경제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대한민

국의 청년들이 인도네시아 같은 데 꿈을 펼친다면 전담 인력, 여기 외교부차관도 나와 계십니까 마는 외교부라든지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또 산업부 연계해서 지원하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 왔습니다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이후에 해외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국내에 입국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권유린, 추운데 반팔 입혀서 장기간 대기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제가 지적하면서 정말 청년일자리 부분……

오늘 국방부차관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방부차관님, 군대 생활이 정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군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죽 보니까 일자리 아카데미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지만 매우 미흡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께서 지금 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 질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해외 청년들 지원청, 일자리 지원기관 또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인력공단 이사장에 취임해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소회를 한번……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지금 청년일자리가 심각한 문제지요, 사실은. 그래서 체감실업률을 22.7%라고 그러지만 더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취업의 활로가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요 17년도에 5118명이 나갔는데 앞으로 외국으로 더 활로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더 늘어나면 관리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라오스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날 아침에 직접 공항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라오스 노동자들이 들어올 때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유니

품을 맞췄는데 저희들한테 상의를 했으면 긴 것으로 입고 들어오라고 했을 것인데 사실 짧은 것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인 언론의 사진은, 일체감 조성을 위한 사진을 찍으려고 대기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그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은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바깥에는 입고 나갈 수 있게끔 저희들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인권유린 부분하고는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이채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말씀 중에 청년일자리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나왔지요?

○**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 장상윤** 예.

○**위원장 이명수** 국장께서 고용노동부하고 내용도 좀 전달을 하고 총괄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는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최근에 해외취업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지금 외교부와 산업인력공단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특히 요즘 일본과 관련해서 3년 새에 취업자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블랙 기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일본의 청년 취업자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어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요즘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어떤 사례를 보면 정부가 취업을 알선해서 일본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게 되어서 결국 4개월 이후에 그만둔다고 했더니 알선비와 한 달 임금까지 페널티 금액으로 지불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경우 어디를 찾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산업인력공단과 외교부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해외에서 부당노동행위지요, 사실은요—그 부분이 제가 가기 전에도 언론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또 국회 환노위에서도 많은 지적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지금 많은 고민을 죽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에서 멘토단을 구성해서 법률 상담도 하고 노무 전문가도 멘토단을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두 분의 부당노동행위로 불이익당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이지요.

○**신보라 위원** 일반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에 K-Move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예.

○**신보라 위원** 그 K-Move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동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동경에 찾아가면 해결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유형별로 조사를 해서, 나라별로도 조사를 해서 조치를,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답변이 불성실한 것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 재외공관,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는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협의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보라 위원**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물론……

○**신보라 위원** 관련해서 담당 업무를 명확하게 보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누가 그 업무를 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총영사관의 경우는 영사가 있고 대사관의 경우는 경제 담당 참사관·공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발견이 되면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불법행위의 시정조치 또 그에 따른 일본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본 재외공관 쪽에 민원 접수 사례가 1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 피해 사례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피해 청년이라 하더라도 재외공관에 찾아가면 해결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막막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예 민원 접수를 안 하거나 그냥 그 피해를 당할 뿐 신고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외공관 사이트랄지 KOTRA랄지 그런 곳에 그런 민원이 정말 가능하고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사실 그동안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취업하는 젊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신 것을 우리 중요한 재외공관에 전부 훈령을 내려 가지고 사이트에다가도 그런 사례를 올리고 또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즉각 재외공관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신보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질의와 또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회의의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몇 번 정부 부처 업무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인데 계속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정말 정부가 대통령이 강조하는 만큼 이 청년정책을 또 청년일자리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저희는 좀 미덥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 계신 분들을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국회가 특위 열어서 챙기니까 와서 잠깐 보고하는 것 이렇게 자꾸 느껴지고요.

예를 들면, 저도 공직생활 오래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과제는 특정한 부서에서 만들어서 위로 수직적으로 보고한 것 이것 가지고 청년정책이라고 부처에서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라면 그 부서의 장이 각 실·국별 전체…… 사실 다 관련됩니다. 관련 안 되는 데가 없어요. 특

정한 실·과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전체를 다 종합해 가지고 부처의 청년정책이라고 그것을 수립해서…… 다만 어떤 이슈가 생길 때에 늘 전담 부서를 만들 수 없으니까 중점 관리하는 부서를 뒤편에 두는데 제가 받는 느낌은 특정한 실·과에서 만들어서 그냥 위로 수직적으로 보고하면 이게 청년정책이라고 부처 것이라고 내놓는 것 아닌가, 그게 좀 아쉽고요. 정말 중요한 과제는 중요한 만큼 의지를 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늘 해 오던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또 이렇게 문제가 되고 부각이 되는가, 왜 청년들이 고민하는가 이것을 함께 고민한다면 지금 내놓은 정책 이상의 여러 가지 다른 시책과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을 유념을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판단하시기에 추가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가 필요하거나 한 그런 부처나 기관이 있다면—꼭 부처가 아니더라도, 산업인력공단처럼—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보고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실 국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나요?

○**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 장상윤** 예,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장 이명수** 그게 언제쯤 나오니까, 대략?

○**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 장상윤** 저희 목표로는 3월 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제가 보기에는 벌써 새 정부 출범한 지 1년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이 정부의 청년정책이 정립이 안 됐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저기를 하고, 지금 전담 부서 문제와는 별개라고요. 전담 부서 설치할 때까지 청년정책을 손놓고 있으면 안 되지요.

○**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 장상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 보고를 다 종합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5년 동안 이것을 청년정책으로 내세우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가 되면 나중에 이 특위에 와서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 장상윤** 알겠습니

다.

○**위원장 이명수**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신보라 위원님, 염동열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서면질의서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성실히 답변서를 작성해서 2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의견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잘 검토해서 보다 적절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 회의 내용 또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제기한 내용 중에 국회에 건의한 사항이나 국회에서 해야 될 사항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출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드리고, 정부 부처와 기관의 간부님들께도 감사의 드립니다.

이렇게 합동으로 회의를 하는 이유는 타 부처 기관의 청년정책이 뭐가 있는가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또 뭔가 연계성을 찾기 위함인데, 오늘은 꼭 그렇게 모인 자리는 아닙니다만 취지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또 회의 준비를 위해 애쓰신 전문위원과 여러 직원들께도 감사의 드립니다.

다음 회의 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월 23일 날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서 네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전문적인 견해를 듣고 또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고, 정부 부처에서도 회의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회의에서 조치하겠다고 한 것 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종합해서 다시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청년관련 법안검토 (7인)	◎김병관 권철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3)
	강효상 신보라 정유섭	자유한국당(3)
	채이배	국민의당(1)
청년정책 (8인)	박정 위성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3)
	◎신보라 박순자 염동열	자유한국당(3)
	김종훈 정인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2)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5인)

강효상	권철승	김병관	김종훈
김중로	김해영	박정	박찬대
신보라	염동열	위성곤	이명수
이채익	임종성	채이배	

○청가 위원(2인)

정유섭	정인화
-----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홍성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장상윤
외교부	
제2차관	조현
양자경제외교국장	윤성덕
개발협력국장	정진규
국방부	
차관	서주석
기획관리관	윤영모
인사기획관	이황규
보건복지관	권영철
국가보훈처	
차장	심덕섭
기획조정실장	이병구
보상정책국장	하유성
제대군인국장	김광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동만
능력개발이사	김인곤

【보고사항】

○위원 당적 변경

위원명	변경 전	변경 후	연월일
정인화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2018.2.12.